

해 외 소 식

—Library News Around the World—

미국국회도서관 「세계아동도서전시회」에 한국작품도 한 몫

미국국회도서관은 IBY 기념사업의 하나로 세계 38 개국가로부터 수집한 130종의 아동도서를 지난 6월 2 일부터 무기한 전시중에 있다. 이 소규모의 아동도서 집시는 미국국회도서관의 아동도서담당 책임자이며 동시에 1972년도 「한스 크리스찬 안데센 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Virginia Haviland 여사가 선정한 것으로, 38개국 가운데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어느 저자 어느 작품이 이 전시에 포함되었는지 아직 알질이 없으나 금년말 미국정부간행물로 간행될 「전시목록」이 나오게 되면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Libr. Congr. Inf. Bull.*, 31(22) June 2, 1972—

1972년도 「알멜센 상」

1956년에 창설된 후 매 2년마다 수상되어 온 「한스 크리스찬 안데센 상」(Hans Christian Andersen Awards)의 1972년도 금메달 수상자가 지난 3월 23일 폴 투갈의 리스본에서 발표되었는데 수상식은 불란서 니스에서 개최된 「국제청소년도서위원회」(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IBBY) 총회에 서 개최되었다. 아동도서부문의 노벨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상은 「한스 크리스찬 안데센 상 심사위원회」가 「국제청소년도서위원회」의 참여하에 지난 2년동안에 출간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아동도서(저작부 문, 삽화부문)를 선정하여 그 작가와 삽화가에게 각각 시상하고 있다. 금년도 [저작부문상에는 미국의 Scott O'Donnell씨, 삽화부문상에는 덴마크의 Ib Spang Olsen씨에게 돌아갔다. O'Donnell씨는 이 외에도 미국과 독일에서 수상한 적이 있으며,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는 *Island of Blue Dolphins*, *The King's Faith*, *The Black Pearl* 등이 있다. Ib Spang Olsen씨는 덴마크에서는 물론 핀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으며,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는 *Lars Peter's Birthday*, *The Little Locomotive* 등이 있다. —*Libr. Congr. Inf. Bull.*, 31(14) April 7, 1972—

I L I C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핏츠버그에 있는 핏츠버그대학교

도서관학 및 정보학대학원(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the University of Pittsburgh)은 점증하는 국제도서관활동에 대비하여 그 부설기관으로 국제 및 비교도서관학관계 전문도서관인 「국제도서관정보센터」(International Library Information Center—ILIC)를 1964년에 창설하였었다. 창설에 크게 공헌한 사람은 국제 및 비교도서관학으로 저명한 Nasser Sharify박사와 도서관학대학원장 Harold Lancour박사였으며, 그 후 이를 발전시킨 사람은 William V. Jackson박사였다. 미국 이외의 국가의 도서관 개발에 관한 자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센터의 컬렉션은 현재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영국, 인도, 파키스탄, 동·서독,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33개국가의 자료 11,000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ILIC는 A. W. Mellon Educational and Charitable Trust Ford Foundation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Aust. Libr. J.*, 21(4) May 1972—

NUC 記入 400만점 돌파

지난 3월 28일 Pan American 106號機는 NUC의 400만점째 記入을 런던의 Mansell출판사로 실어 날랐다. 1966년에 시작된 Mansell 社의 NUC출판계획은 1976년에 가서야 1956년 까지의 모든 LC記入을 완전 편집, 출판될 예정으로 있다. 총 600권에 1,000만점의 기입을 수록하게 될 이 목록은 현재 알퍼셀슨의 G까지 즉 194권까지 출간되었다. —*Libr. Congr. Inf. Bull.*, 31(18) May 5, 1972—

NPAC 50만점 돌파

미국국회도서관의 분담목록과(Shared Catalog Division)는 지난 4월 5일 현재 「收書編目國家計劃」(National Program for Acquisitions and Cataloging—NPAC)에 따라 편목한 책수가 50만점을 돌파하였다. 1966년 봄부터 시작한 이 NPAC는 만일 어떤 한 책이 그 책이 발행된 국가의 국가서목(national bibliography)에서 적절히 편목된다면 그 편목정보는 LC 편목기입의 기초(basis)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밑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담목록과가 1966년 7월에 설치되었으며, 분담목록 목적으로 외국 국가서목과의 제휴는 최초 영국의 BNB로부터 현재는 24개국의 국가서목으로 늘어났다. —*Libr. Congr. Inf. Bull.*, 31(18) May 5, 1972—

사회봉사 실습으로 택한 도서관

캐나다의 토론토공공도서관(Toronto Public Libr-

rary)은 이제까지 도서관학과로부터만 받아오던 실습생들과는 달리, 이제적으로 사회봉사실습으로 3명의 학생을 받아드리게 되었다. 이는 곧 도서관이 점차 적극적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단적인 예라 볼 수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사회봉사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4개월간 도서관에서 사회봉사실습(social service field work)을 하게 된 이들 학생들은 주당 7시간씩 일할 예정인데, 그중 2명은 Ryerson Institute에서, 1명은 Humber College에서 올 학생들로서, Ryerson에서 오는 학생은 한 분관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을 담당할 예정이며, Humber에서 오는 학생은 도서관안내프로그램을 맡을 예정으로 있다. —*Libr. J.*, 97(7) April 1, 1972—

토론토대학 학부학생들 「서고 출입」요구코 철야농성

캐나다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학부 학생 약 100여명은 앞으로 1년내 완공 예정인 John P. Roberts기념도서관을 20,000여명의 학부 학생들에게는 직접 서가에 접근시키지 않겠다는 대학방침에 항의하여 철야농성시위를 벌였다. 12년전에 계획한 이 Roberts도서관은 4,200만달러를 투입하여 14층으로 건축중에 있는데, 대학당국이 대학원생과 교수들에게만 개방하겠다고 선언하자 학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동료 7,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일방, 철야농성이란 실행행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학생신문인 *The Varsity*도 적극적으로 이 부당한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토론토공공도서관장 H.C. Campbell박사를 비롯한 토론토지역 도서관계 인사들도 학생들의 주장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그런데 토론토대학도서관장 R.H. Blackburn씨는 서가 접근 제한 이유로 도난, 배열착오, 도서손상, 대학원생 및 교수들의 연구분위기 방해등을 들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도서관위원회(Library Council)는 Blackburn관장을 옹호하여 학부학생들에게는 開架치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이의 부당성을 제차 강조하고 대학평의원회(University Senate)에 이 문제를 상정시키기로 결정하였다. —*Libr. J.*, 97(7) April 1, 1972—

미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에 Robert Wedgeworth, Jr.

미국도서관협회 집행이사회는 David H.Clift씨의 후임으로 Robert Wedgeworth, Jr.씨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였다. Wedgeworth씨는 Wabash College에서 A.B. 학위를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M.S. in Library

Science학위를 받았으며, 국장취임 직전에는 Rutgers 대학교 도서관학대학원의 조교수겸 박사과정학생으로 등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American Libraries*는 7/8월호를 전국장 Clift씨 기념호로 펴낼 계획으로 있다.

—*Libr. Congr. Inf. Bull.*, 31(14) April 7, 1972—

「선레이도서관」주당근무 4일제 실시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선레이도서관(Sun Ray Library)은 주당 40시간 4일제 근무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90일간의 시험기간에 들어갔다. 만일 이 기간 동안에 이 제도가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앞으로 이를 계속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4일제 근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 5일제 근무보다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으며, 업무성과를 올릴 수 있고, 결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도서관외에도 4일제를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중 몇곳을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디애고 캠퍼스도서관, 캘리포니아주 파로스 펠레스도서관, 미네소타주 헤네핀도서관, 뉴저지주 다니엘 리스도서관 등이 있으며, 보다 급진적인 도서관 으로서는 뉴욕주에 있는 펄 리버 공공도서관(Pearl River Public Library)으로서 이 도서관에서는 주당 35시간 4일제 근무를 6년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Libr. J.*, 97(7) April 1, 1972—

韓日 出版貿易

日本 文壇에서는 李恢成氏가 芥川賞을 鄭承博氏가 農民文學賞을 받았으며, 出版界에서는 金思燁·趙演鉉共著의 「朝鮮文學史」가 日語로 翻譯되었고 辭典類로는 金素雲 編 「韓日辭典」과 朴成媛 編 「日韓辭典」이 刊行되어 巴야흐로 韓國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韓日間의 出版物 貿易은 아직도 심각한 貿易 逆潮를 면치 못하고 있다. 統計에 의하면 작년도에 우리 나라에서 日本으로 輸出한 出版物 價格은 \$8만인데 비하여 輸入은 \$130만로서 그 비율은 무려 1:16에 이르렀다. —*國立圖書館月報* (134) 1972年 5月—

(Comp. by B.M. RHEE)

